

# 새 시작, 더 행복...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

기대와 설렘의 새해 '레드푸드' 도시 장수의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다.

장수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군정 전반에서 굵직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고 본예산 기준 군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2,144억원 규모 확보, 공모사업 도전 성과 등이 더해지며 군정 추진 동력을 끌어올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점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4등급'을 달성으로 군정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각 분야에서 상을 휩쓸며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새롭게 도약하는 장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다.

장수군의 올해 사자상은 '금석유개(金石玉階)'이다. 어떠한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결국 성과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민과 함께 단기간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노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군정 과제를 차분히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군민과 함께 열어가길 장수의 2026년을 들여다보자.



농어촌 기본소득

## ▲장수군 활력 회복을 위한 첫 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본격 시작

2026년 장수의 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약 2만1,000여명의 군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해 2년 간 총 76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도록 설계됐다.

장수군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 단위 기본소득위원회와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이원화해 구성해 군 위원회는 정책 방향과 운영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읍·면 위원회는 신청 접수, 자격 확인, 지급 대상자 결정 등 현장 중심의 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마을 조사를 운영해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단계적인 실행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가 군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농업은 '스마트·고도화'로... 과수·원예·축산 경쟁력 강화에 집중

장수군은 올해도 농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두고 생산 기반 고도화와 미래 대응형 농업 구조 전환에 힘을 쏟는다. 먼저 첨단정밀농업과 장수를 두산리 일원에 16.8ha 규모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과수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 기반의 생산·관리 체계를 접목해 미래형 과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인력 부족이 일상화된 농촌 현실에서 이러한 기반 사업은 농업 지속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수산과학' 운영도 눈에 띈다.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토마토 증류·심화 과정, 사과 다육·밀식 과정 등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기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원예·시설 분야에서는 ICT 융복합 지원과 청년 스마트팜 확산 과수 생산 기반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안정성을 함께 높인다. 축산 분야 역시 저탄소 한우 육군 조성과 우량 혈통 관리 등을 통해 장수한우 명품화와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을 목표로 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장수 사과



스마트팜



은복샘 자작나무숲

## ▲대표관광지·국가생태관광지·축제·산악 레저 '100만 관광 장수시대' 실현

그동안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던 장수는 이제 대표관광지, 국가생태관광지, 대표 축제, 산악 레저를 중심으로 '100만 관광 장수시대'로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22만 여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98만 여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올해 장수누리파크는 체험형 유리온실과 치유정원, 친환경 스키, 글램핑장, 놀이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 공간으로 만들어 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된다. 지난 2024년에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금강차물 은복샘과 수분마을'은 새로운 즐길거리, 볼거리를 선보여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1번지로 만든다.

농어촌 기본소득 안정적 운영  
지역 소멸 대응·생활안정 도모  
농업 스마트·고도화 '온 힘'  
100만 관광 장수시대 실현  
공공임대주택 중심 정주 기반 강화  
장수형 통합돌봄 체계 확대

최훈식 장수군수 →



출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 '장수형 통합돌봄' 확대와 생활 밀착 복지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 사각지대 없는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올해 복지 분야에서는 '장수형 통합돌봄' 체계 확대가 핵심이다. 방문요양, 일상돌봄, 주거개선 지원 등을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생활하던 곳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공설장사시설 조성 추진 등으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예방 중심 보건사업을 강화해 치료가 아닌 단계에서 건강을 지키는 생활 보건 체계를 구축한다.

장수군은 이러한 복지 정책이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올해 장수군은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스포츠·레저 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산서면에 건립중인 '산서실내체육관'을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체육과 각종 체육활동이 가능해진다. 장수를 노히리 일원에는 36홀 규모의 장수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실내·야외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해 군민이 일상 속에서 운동과 여가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군민들의 건강관 여가를 책임질 '어울림형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목특화형 빌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건축물 내·외부 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화된 냉난방시스템 교체, 수처리·전기·통신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시설 전반의 이용 환경을 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군민 누구나 한 곳에서 문화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층별 권역별 균형있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힘과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에도 장수의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과 함께 일심협력해 더 살기 좋은 장수,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장수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단기기에 드러나는 성과보다 장수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며 백년을 내다보는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 한우랑사과축제



콜밸리 트레일라이스



콜밸리 페스티벌



노인여가프로그램

또한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콜밸리 페스티벌'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에 이어 4년 연속 전북특지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군 대표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축제'는 더욱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축제로 만든다.

산악레저 분야에서는 트레일로드와 MTB 코스 조성, 생활인구 확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장수군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 기반을 강화한다. 장수트레일라이스와 캐니 크로스 등 기존 대회는 연중 콘텐츠로 확장해 '한국의 사모니 국제산악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처럼 골목 없는 관광산업에 열정을 쏟고 있는 장수군의 도전과 전진하는 행보는 '100만 관광 장수시대' 실현을 통해 올해 빛을 발할 전망이다.

##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거 기반 확충... 정주·청년 정책은 '공간'으로 완성

장수군은 올해 주거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중심으로 정주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주택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군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은 올해 5월까지 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동부권 특수학교인 덕유샘 학교와 연계한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학교 관련 중사자와 보호자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계북면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교육 인프라와 지역 정주 수요를 함께 반영한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해 권역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장수군은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2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계면에는 마을장비형 공공임대주택 140세대를 조성해 주거 공급과 마을 정비를 연계하고 장계 생활권의 정주 기능을 보완한다. 계남면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80세대를 조성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세대별 균형 잡힌 주거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 한다.

여기에 전북형 반환주택 건립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출산 시 임대료를 면제하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 주거 안정과 장기 정착을 함께 지원한다. 2029년까지 총 100세대의 반환주택을 공급해 청년 인구 유